

中 당국 신종코로나 사망자수 축소 논란

“5분동안 시체 8구 실려나가”
누리꾼 영상 올렸다 체포
의료시설 부족이 근본원인
“치사율 발표보다 훨씬 높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이 중국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망자 수가 실제보다 축소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중국 차이신(財信), 홍콩 명보,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사망자 수가 361명이라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망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퍼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누리꾼 팡빈(方斌)이 신종코로나 발원지인 우한(武漢) 제5병원 입구에서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그가 지켜본 5분 동안 무려 8구의 시신이 자루에 담겨 병원 밖으로 실려 나갔다. 그가 병원 진찰실 안에 들어가 보니 한 병상 위에 이미 사망한 환자가 누워 있었고, 병상 머리맡에는 그의 아들이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팡빈이 병원 직원에게 “안에 시신이 얼마나 많냐”고 물어보자 이 직원은 “아직 많다”고 답한다. 팡빈은 지난 1일 이 영상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당국에 체포돼 다음 날 풀려났다.

특히 우한과 인근 도시인 황강(黃岡) 등

의 의료시설과 물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신종코로나에 감염되고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것이 현지 언론의 취재를 통해 드러났다. 한 신종코로나 지정병원 책임자는 차이신에 “이틀 동안 병원 내에 80명의 폐부 감염 환자가 있었지만, 입원이 허용된 것은 5명에 불과했다”며 “나머지 75명은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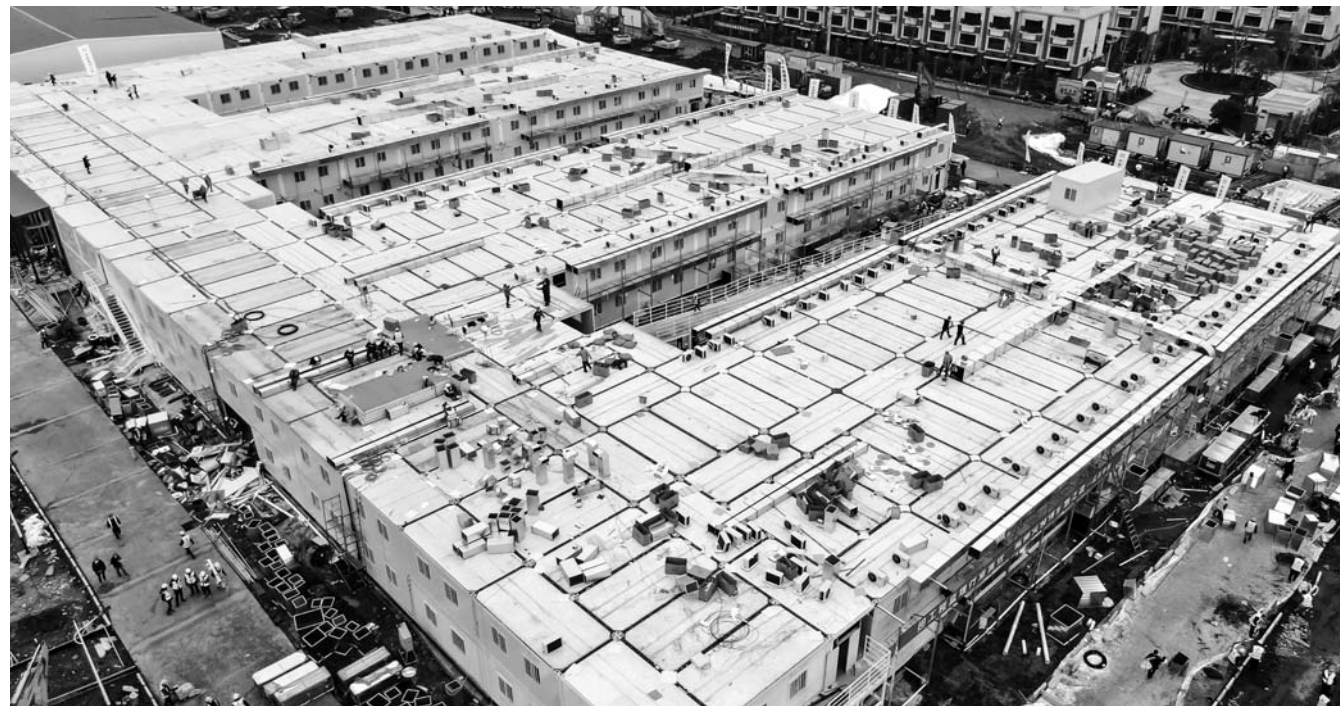
다른 지정병원 의사는 “600명의 중증 환자가 있었지만, 검사 재료인 핵산 검사지

가 부족해 단 한 명의 확진 판정도 내리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이러한 경우 사망자는 신종코로나 사망자 통계에 잡히지 않고 ‘보통 폐렴 사망자’나 ‘미확인 사망자’ 등으로 처리된다. 이 병원에서만 이미 5명의 ‘미확인 사망자’가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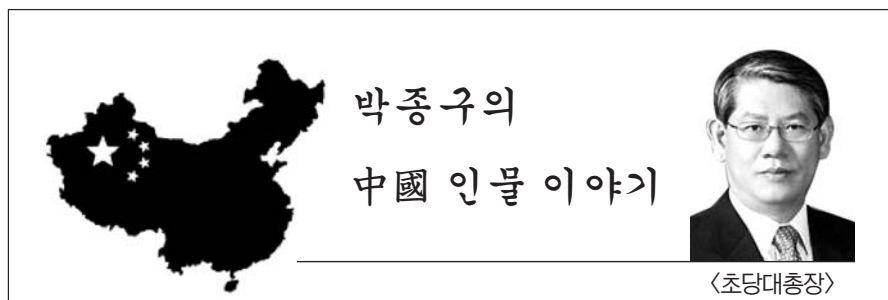
우한 시민 류메이(劉梅)는 “지난달 21일 시어머니가 폐렴 증상을 나타내 진찰을 받은 결과 ‘폐부 고도 감염’ 진단을 받았지만, 입원을 못 해 집에서 치료했다”며 “결국, 시어머니가 사망했는데 ‘보통 바이러스성 폐

렴’으로 사망 원인이 나왔다”고 전했다.

더구나 이러한 사망자들의 시신은 당국이 화장장에서 즉시 화장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사인을 밝힐 기회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우한의 한 장례업체는 “시신을 담을 자루가 부족하니 기증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당국의 발표대로 이날까지 우한 내 사망자가 224명에 불과하다면 과연 시신을 담을 자루가 부족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10일만에 ‘뚝뚝’ 중국 당국이 우한의 신종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건설한 화산산(火神山) 병원이 착공 열흘만인 2일 공사를 마친 모습.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218〉 왕안석

왕안석(王安石, 1021-1086)의 자는 개보(開甫)로 강서성 임천현 출신이다. 북송 신종때 신법 개혁을 추진한 정치인이다. 시와 산문에 뛰어나 당송 8대가의 일인으로 꼽힌다.

경력2년(1042) 진사에 급제해 회남의 판관으로 공직을 시작했는데 20-30대는 주로 지방에 근무했다. 집안이 한미해 공용전(公用錢)이라는 특별수당을 주는 지방직을 희망했던 것 같다. 북송은 요와 서하에 대한 과도한 세폐 지급과 전염지 관료에 대한 높은 급여로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은음(隱吟)이라는 제도를 실시해 공신의 자제를 관리로 채용하는 등 관리의 수가 급증했다. 1058년 왕안석은 인종에게 만언서(萬言書)를 제출했다. 당시

직접 상인에게서 구입하고 영세 상인에 대한 저리대출 등을 통해 대상인과 어용 상인의 과점을 억제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황족·귀족·대상인의 반발이 격렬했다. 시역법으로 왕안석이 궁지에 몰렸다. 실각과 복귀를 반복한 끝에 1076년 사직하고 강릉으로 낙향했다.

신법을 둘러싸고 왕안석을 지지하는 신법당과 이에 반대하는 구법당으로 조정이 분열되었다. 북송이 멸망할 때까지 5번이나 양파간 정권 교체극이 벌어졌다. 북송이 멸망한 것은 후세 사람들의 주장처럼 무리한 신법 시행 때문이 아니라 거듭된 당쟁 때문이었다.

왕안석은 신법의 정치인이었다. 그가 남긴 시구 중에 “한 백성의 삶이 천하보다 무겁다”는 구절이 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민초의 삶이었다. 하늘의 별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天變不

시와 산문 뛰어난 북송 개혁주의자

정치의 폐단을 거론하고 인재, 이재 등에 관한 다양한 시책을 건의했다.

1067년 신종이 즉위했다. 젊은 황제 는 왕안석을 기용했다. 강녕의 지부에서 한림학사로 기용한 후 부재상인 참지정사로 발탁했다. 황제는 조정 중신들에게 “왕안석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필요 없다(祖宗不法) 남의 말에 신경 쓸 것 없다(人言不足恤). 유명한 3 부족론이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개혁의 집행이고 의지의 관철이었다.

반대파는 그가 변칙되었다고 비판하며 음식 먹는 것을 예로 들었다. 늘 동일한 접시에 젓가락이 간다는 것이다. 동료들은 젓가락이 가까운 접시에 갔을 때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신종은 제치삼사조례사(制置三司條例司)를 신설해 신법을 적극 지원했다. 신법 중 청묘법(靑苗法), 모역법(募役法), 시역법(市易法)이 대표적이다. 왕안석은 청묘법을 신법의 근간으로 생각했다. 청묘법은 국가가 저리로 농민들에게 대부하는 제도다. 농민은 춘궁기가 되면 6, 7월의 고리로 지주에게 돈을 빌려 수확기까지 생계를 유지했다. 이자를 2할 이하로 대출해 농민의 어려움을 경감하려 하였다. 왕안석은 농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토지경병을 막아야 국가재정이 재건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문장이 뛰어나고 암기력이 좋아 후배들의 글을 한번 읽으면 절대 잊어버리는 법이 없었다. 글을 쉽게 쓰는 것 같은데 완성되면 모두들 글의 깊이와 정치함에 혀를 내둘렀다. 동생들과 우애가 깊어 녹봉을 받으면 며칠내 동생들에게 모두 주었다.

그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크게 갈린다. 남송의 주희는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남송 이후 유가 계통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간신, 소인이라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신법은 농민과 영세 상인을 살리기 위한 계획이었고 부국강병책이었다. ‘심사가 배배조인 재상’이라는 반대파의 공격은 그가 순수한 개혁주의자임을 보여주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시역법은 영세 상인을 구제하기 위한 시책으로, 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연월일 거꾸로해도 20200202 909년만의 희귀한 날에 ‘환호’

다음 ‘회문의 날’은 101년후

앞부터 뒤여도 20200202, 뒤부터 앞여도 20200202.

전 세계 수학자 등이 2일(현지시간) 900여년 만에 ‘회문(回文-palindrome)의 날’을 맞아 들뜬 분위기라고 AP통신과 CNN 등이 보도했다.

‘회문’이란 앞에서부터 읽으나 뒤에서부터 읽으나 같은 문장이나 단어를 뜻하는 말로, 2020년 02월 02일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난 회문의 날은 909년 전인 1111년 11월 11일이었으며 다음 차례는 2121년 12월 12일이어서 101년을 기다려야만 볼 수 있다. 2121년 12월 12일 이후에는 3030년 03월 03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쓰는 미국이나 일, 월, 연도순으로 쓰는 다른 나라나 어느 쪽 방식을 택해도 숫자가 똑같이 배열된다. 보스턴 에마누엘칼리지의 헤더 피어스 수학 강사는 “이런 회문을 낚은 살면서 한번도 못 겪을 수 있다”면서 “인생에 한번 있다는 것은 상당히 멋진 일”이라고 말했다.

소셜미디어에선 수학자가 아닌, 일반인들의 반응도 뜨겁다. 트위터에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회문의 날을 축하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영화 ‘스타워즈’에 출연한 영화배우 마크 해밀은 트위터에 “101년 안에 다시 없는 일 아니면 이번을 최대한 즐겨라”라는 글을 올렸다. 미국의 패러디 가수인 워드 엘 안코빅은 “마침내 중요한 날이 왔다”며 “회문의 날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美, 미국행 탑승객 전원에 中 방문여부 확인

8개 지정공항으로 입국해야

미국 정부는 2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자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승객의 중국 방문 여부를 확인하는 등 탑승 절차를 강화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국토안보부(DHS)가 이날 내놓은 규정 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모든 승객에게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본토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아야 하고, 필요할 경우 여권을 조사할 수 있다.

항공사들은 세관국경보호국(CBP)과 협력해 항공기 출발 전에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탑승객들을 확인해야 한다.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을 여행한 적이 있는 미국인의 경우 당국이 이미 지정해둔 공항을 통해서만 입국해야 한다.

입국 지정 공항은 이날 현재 뉴욕·시카고·샌프란시스코·시애틀·호놀룰루·로스앤젤레스·애틀랜타·워싱턴DC 등 8개 공항

이며, 오는 3일 뉴워크·댈러스-포트워스·디트로이트 등 3개 공항이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DHS가 밝혔다.

DHS는 “비행 도중 누군가가 최근 2주 내 중국에 있었다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중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여행자들도 지정된 공항들 중 하나로 입국 경로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을 방문한 미국 시민들이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면 최종 목적지로 다시 이동할 수 있지만, 최대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요청받게 된다고 DHS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미 최대 항공사인 아메리칸항공은 이날 미국행 승객들에게 “추가 조사를 인해 평소보다 체크인 과정이 길어질 예정이라 출국 3시간 전 공항에 도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메리칸항공은 중국을 오가는 모든 항공편을 3월27일까지 중단했다. 델타항공은 4월30일까지, 유나이티드항공은 오는 6일부터 3월27일까지 중단했다. /연합뉴스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